

통권 7호
복간 4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 1992. 4. 30
발행인 / 권오현
발행처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 2동 592-7 (110-542) 전화(02) 763-2606, 745-5604

< 제 4차 총회 보고 >



지난 4월 24일 오후 6시30분 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명동 향린교회에서 양심수후원회 4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는 약 100여명의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1부 총회, 2부 민묘연구회 공연, 3부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보고, 재정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3차년도 회장단인 권오현 회장님, 조만조, 조무하 부회장님의 유임하셔서 일년간 더 고생을 하시기로 하셨으며, 운영위원은 소설가 윤정모, 변호사 임종인, 출소자 김영옥 선생님들이 선출 되셨습니다.

또 1년간의 재정을 감사할 감사에는 진관 스님과 최재봉 선생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모범회원 시상과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는데, 모범회원에는 후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매달 1회씩 한달도 거르지 않고 은행을 통해 회비를 납부해 주신 신미순 회원과, 역시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든 성성을 다해 후원해 주신 소수영 회원님이 선정 되셨습니다.

또한 회원은 아니지만 구로동 만남의 집을 얻는데 큰 도움을 주신 서항룡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에게 크나큰 성의를 보여 주신 새길교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양심수 자녀들을 후원하는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에는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 진행된 민묘연구회의 간단한 공연과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는 모두가 흔쾌한 분위기에서 노래 배우기, 출소장기수 소개, 회원들 소개 그리고 민가협 어머님들의 노래등이 진행 됐었습니다.

<4월 산행 보고>



지난 4월 12일 (4월 둘째 주 일요일) 후원회원 19명이 관악산에 올랐다. 분반활동의 첫번째 출발인 이 날은 분반모임 구성원의 출석률은 낮았고, 오히려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회원들이 더 많았다.

아침에는 곳에 따라 쌈래기도 오고, 봄 날씨 답지 않게 찌뿌둥한 하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산에 올를 때는 간간히 햇살도 내리 죄어서 무사히 등반을 마칠 수 있었다. 10시 서울대 정문앞에서 권오현회장님과 소혜 아버님 권광일씨를 비롯한 작은 물방울 모임 여러분들이 일착으로 모이셨고 11시에 산행을 시작했다.

삼막사를 좌측으로 하고 능선을 따라가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풀어 푸짐한 점심밥을 먹었는데, 전날밤 새벽까지 김밥을 말아온 이대간호학과 출신 후원회원들 덕분에 먹을 게 남아도는 휘귀한 일까지 벌어졌다.

스스한 날씨로 회원들이 체하지나 않을까 배려(?)하는 노태훈 간사 덕분에 회원들은 사랑가를 부르면서 서로를 흡씬 두들겨 패며 사랑해 줄 수 있었다.

모처럼 솔가지 아래, 진달래가 한들거리는 산마루에서 맑은 웃음을 나누고, 진지한 후원활동의 의지를 나누고 나니 한결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 5시쯤 낫골쪽으로 하산하여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매달 1회씩 산행을 할 것을 결의하고 아쉬운 헤어짐을 나누었다.

▶ 참 가 기 <후원회원 등반 모임>

— 관악산을 다녀와서

후원회원 송진복 (32세, 남)

역세울음으로 시작되는 4월의 꽃들이 붉다.

진달래가 피더니 이윽고 철쭉이 만개한다. 이 붉은 꽃들에는 질은 갈망이 담겨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명경지수와 같이 마음을 비웠다는 그들의 수사법이 오히려 더 큰 권력 의지로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눈앞의 욕심외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일까?

진달래꽃처럼 붉은 국민들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위장'이 몸에 밴 늙고 추한 김구 선생의 암살자의 냇두리가 시작된 날인 4월 12일의 우연한 산행은, 그런 나의 허탈함을 채워주기에 한 틀도 부족하지 않았다.

약속은 부채라 했는데, 집이 코앞에 있으면서도 30분이란 '코리안 타임'을 고수케했던 전날의 밤샘 피로는, 출발직전 처음 만난 후원회원들과 수인사를 나눌 때 회원들의 열린 마음의 눈빛 때문인지 어느덧 싹 가시게 되었다.

서울을 병풍처럼 짜고 있는 관악산 입구를 들어섰을 때, 길목의 개나리 꽃들은 노랑 몸짓으로 우리를 반겼고, 뭐니뭐니해도 진달래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은 사람과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참가자 중 양적으론 9할이 초면이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99%의 심증은 있되 1%의 물증이 없는 듯한 기분으로, 특히 여성회원에게 말을 거니 오래된 애인(?)처럼 받아주어, 자족화된 '기대와 실망의 비례'란 속담을 일거에 극복한 것 같아 내심 뿌듯했다.

비록 금강산은 아니었지만, '관악산도 식후경'에 대한 어김없는 한 목소리는 아침을 거른 나의 눈을 커지게 했고, 마치 '싸움하듯' 맨밥에서 김밥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밥이 보약'이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절로 떠올랐다.

점심 식사후 우리는 '파쇼의 조상 히틀러'의 율동으로 추위를 거뜬히 이길 수 있었고, 계속된 '고릴라 빵' '민방위 빵'을 하면서 사정없이 서로를 두들겨 패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자기 소개시간이 이어지면서, '재미'위주였던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의미'까지 보듬는 본색(?)을 드러냈다.

누군가가 춥다고 한 마디 했다가, 출지에 당했던 사람잡는(?) 공포의 놀이시간을 모두 예상치 못한 것만 뺀다면, (사실 맞으면서도 즐거웠고, 급기야 일부러 맞으려는 '남성'도 있었음) 침묵과 무관심이 현명한 처세술로 통용되고, '말따로 행동따로가'

여과없이 난무하는 거짓의 끝을 알 수 없는 시대에,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회원들의 진솔한 발언들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일조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지면을 빌어 그때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견해를 두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감옥이나 몇 번 드나들다가 …’식의 누군가가 한 말을 편리할대로 토막쳐 대의를 그릇 파악하는것이 상습화된 일부지식인의 너무 편한 ‘늦깎이 의식’이다.

지식인이 왜 지식인이고 하니, 현상을 보되 머리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듬고 궤뚫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상황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자’고 외치는 것이 곧 지적 훈련을 고도로 쌓은자의 용기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유서대필’만 해도 그렇다.

‘운동권은 곧 과격 이미지’란, 일종의 후광효과(한 특성이 내용적으로 무관한 다른 특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로써, 일례로 아이들의 그림책에 흥부는 항상 미남으로 그려져 있다)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대표적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기설씨가 설사 살아와 내가 썼다해도, 강기훈씨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천인공노할 무서운 녹단이다.

어쨌든, ‘감옥이나 드나들다가…’의 시선을 뺀다는 것도 자유다. 당신은 노상 편하게 살아 좋겠다고 맞받아치는 역반응 또한 자유다. 그러나 역사의 개량 아닌 진전은, 전자보다 후자의 희생적인 투신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걸 확신한다.

감옥은 하나의 치열한 상징일 뿐, 전자가 누리고 있는 당대의 자유도, 정신적 감옥살이까지 마다하지 않는 후자의 피나는 노력 덕택이다. 그만한 믿음없이 지식인은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인간사는 어떤 점에서 보면,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양심을 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양심을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로 예찬했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양심은 ‘간지럼’과 같아서 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가책을 받지 않는 철면피한들이 월씬 많은 것이 문제다.

분단의 산물인 반목과 대립의 가장 혹독한 피해자인 장기수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를테면, 조작간첩의 대표적인 예인 함주명씨에게 한시바삐 ‘조국’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을하면, ‘지나가는 황소보고 갈비 한대를 생각하는’격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시인 김광섭은,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 섰다가도 사람사는 꽃이 어수선하면 슬슬 기어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고 읊었다.

그날, 우리 일행은 관악산을 정복하는 대신, 그 품에 안겼다.

모두가 은근히 고대했던 뒷풀이도 있었고, 이름이 누군가와 비슷한 것만 제외하면, 눈꼽만큼도 밉지 않은 일꾼 노태훈 간사의 낙낙한 마음과 듬직한 덩치는, 나로 하여금 입장의 동일함(“양심수 문제 해결 없이는 민주화도 통일도 없다”)과 함께, 굴러온 돌도 박힌 돌을 빼낼수 있다는 ‘만용’을 심어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썩지 않는 진리의 뿌리” — 출소 장기수 이종 선생님을 찾아서

편집부

원 흥 전영 (27세, 글짓기 고사)

지난호에 이어 출소하신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대답을 준비다가, 너무도 많은 선생님들중 누구를 만날까 무척이나 고민스러웠다.

그러던중 후원회간사로부터 출소하신 선생님중 가장 연장자로 선생님들중 ‘좌장’격인 이종선생님을 찾아 뵙기로 했다.

이종 선생님은 현재 82세로 도합 22년의 육고를 치루면서 감옥안에서도 놀라운 성품으로 모든이들로 부터 존경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

후원회에서 마련한 구로동‘만남의 집’으로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백발에 가부좌를 틀고 의연하게 앉아계시는 모습이 나를 긴장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의 신상을 묻는 다정하신 목소리가 선생님에게 내가 일시에 갖은 선입관을 모두 지워지게 하였다.

선생님께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 욕심으로 감옥생활, 나오신후 생활, 가족관계들 많은 질문을 했으나, 그저 가벼운 미소만 지으시더니, 젊은 시절에 대한 말씀만 해주겠노라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젊은 시절이라, 그러면 고학당 얘기를 해주지” 새하얗게 센 머리, 웃음을 쭉 펴고 않아계신 단아한 모습의 이종 선생님께서 환한 눈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20대, 청년시절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어쭙자 대번에 말씀하신게 고학당이었다. 우리 세대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였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배웠

지만 그 어느 구석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실체이다.

“내가 배운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였는데 배운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선생은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농사를 짓다가 열아홉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다. 아는 사람도 믿을 만한 구석도 없이 단지 중학과정 공부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짚신을 끌고 걸어서 오셨다고 한다. 그 당시는 선생과 같은 고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만주야 호야 호야” 하며 호떡을 팔기도 하고, 옛장수 노릇도 하고 책도 팔면서 고학을 하던 이들의 이야기가 1930년대 소설에 그려진 것이 떠올랐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온 진보적인 인텔리들이 동대문 우시장에서 천막을 치고 이들을 모아 학교를 열었다. 고학생들을 위해 분투하던 이 젊은 선생님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을 돌며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하여 숭인동에 집터를 얻어 함석지붕을 이고 함석간판을 달아 고학당의 터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럼 이 고학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경쟁이 대단했겠네요 ?”

“그렇지요, 고학당에 사무실, 교실, 기숙사까지 있어서 고학생이 400명 정도 있었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저마다 30전씩 벌기위해 서울시내를 뛰어다녔다.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헌신하느라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했다. 고학당의 선생님

들은 움집에서 쫓겨나서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도 고학당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 같다.

그래서 1,2학년 때에는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3,4학년이 되면 사회 과학공부가 주가되어 정치학, 경제학, 철학 학습을 했고 각 학교의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셨다고 한다.

1929년 광주의 한 통학열차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일본인 남학생들이 희롱 한데서 출발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고학당은 서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을 독서회를 통하여 끌어 세웠다.

그것은 곧 일제에 의한 탄압과 겹거로 이어졌다. 몇 차례나 조선총독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고학당은 태평양 전쟁을 즈음하여 좌익세력의 온상지라는 이유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당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브나르도 운동, — 농촌계몽운동을 했습니다. 농민조합과 청년동맹 일을 하던 그 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은 편이었다. 여든이 넘어 연로하신 데다가 오랜 감옥생활에서 얻은 병, 전향공작으로 고문을 받았던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씩 굳어가신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고학당 이야기를 하시던 선생님의 얼굴에서 소년 같은 흥조를 보았다. 지난번 임방규 선생님을 뵈었을 때와 똑같은 젊은 웃음을 말이다.

임방규 선생님께서는 스물한 살 나이에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내 죽음은 얼마나 영예로운 죽음인가! 이제 끝내 날양군 도에 가서 죽는 젊은이도 있었고, 미국과 이승만의 당에 이끌려 동족을 죽이는 전쟁터의 총알받이도 죽어가는 것이 아닌 민족과 인민을 위해 투쟁하다가 죽은 것은 영예로운 죽음이다.”고 되뇌이셨다고 했다.

두분 모두 인생의 개화기에 자기자신만

을 위한 삶을 거부하고 민족을 위한 삶의 길은 선택하셨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칸고한 세월을 이겨내신 것이다.

이종 선생님이 젊은 시절 푸른 야망을 불태웠던 고학당의 집터는 반백년도 흐르기 전에 흔적이 없어진채 주택가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 시절 선생님의 가슴에 박힌 사상과 신념의 뿌리는 변한 것이 없다. 선생님에게 고학당은 그런 의미가 부여된 곳이었다.

선생님께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은 남았다. 하지만 선생님과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단지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이상, 선생님이 현재 처한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욕심이 아니었나 반성이 들기도 했다.

“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진리의 뿌리는 기후나 토양이 바뀌어도 결코 썩지 않습니다.”

비단 선생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은 더욱 깊게 내 마음에 새겨졌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검증해온 진실이기에,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의 인생관을 올곧게 세우는데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또박또박 되풀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외우며 만남의 집을 나섰다.



♪ ♪ ♪ 나의 삶, 나의 일터 ♪ ♪ ♪

“내 직장에서 공동체 삶을 실현시키자！”

후원 회원 나 명주 (26세, 여, 회사원)

■■—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날 깨우는 이 소리.

이불을 둘러쓰고 무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아유 지겨워’ 이 한 마디로 나는 이 기계음에 순종할 수 밖에 없다.

대충대충 눈꼽만 떼내고 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여기 좀 봐 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서로 아우성치는,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수많은 광고들을 나름의 분석력을 가지고 지켜본다.

‘제기랄! 복사기 광고에 왜 하필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자가 등장해야하나. 아유 저 여성지 좀 봐. 대부분 지명도 높은 어르신네 사생활이잖아. 저런 것도 돈내고 사보는 사람들도 있나, 여성지라면 적어도 여성의 평생교육용 정도지 되어야하지 않을까?’

정말 내 나름의 넋두리이다.

그러다 거기에 짙증나면 창밖의 한강대교를 멍청히 쳐다보다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 속에서 좀 편한 자세로 서보려고 팔다리를 반사적으로 움직여 보지만 지옥철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시선을 떨구어 버린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짐짝처럼 취급되면서 운반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매일매일 지겨워하면서도 그대로 그 자리를 찾아가야만 하는가를 나 자신에게 물곤 한다. 축 처진 어깨, 자존심만큼이나 구겨진 옷을 털며 사무실에 들어선다. 책상에 풋 헤친 죽은 서류더미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들, 이런 류의 잡무에 도가 른 나를 대견(아니 죽은)해하며 관성적으로 일을 처리해간다.

“어 이거 현대건성을 무너뜨리려나. 나 주식투자 해 놓은 것 있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뭘 알아야지, 현대 망하면 우리 경제 주저앉는지는 모르고”

나름대로 경제분석과 자기이해를 따져드는 동료들을 무시하고 자질구레한 나의 일상 작업에 몰두한다.

‘웃기고 있네, 자기네가 뭘 안다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둘 운운해. 괜찮이 나 올바르면’

6시 ! 오늘도 어김없이 정시 퇴근.

짜증과 지겨움으로 대변되는 나의 일상생활이다.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거대조직속에서 ‘나’라는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현실을 비관하며, 직장 또한 원수처럼 여겨진다.

토요일이면 으레껏 “***씨 데이트 안해? 젊었을 때 데이트도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지. 젊다는 것 자체를 재산으로 알나구” 하시며 나의 젊음을 일깨워주는 선배가 있다. 언뜻 듣기엔 젊음을 부러워하는 낄두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식상하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은 ‘젊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사는 것 같다.

거대 자본주의 구조속에서 합리적인 착취를 받아가며 젊은이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않나싶다.

개인적인 데이트 차원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직장 사랑이 곧 조국사랑의 길이다’라는 문구를 어느 무크지에서 본 기억이 난다.

‘직장사랑!’ 글쎄 내 직장에 대해 별 애착이 없는 나로서는 무심코 흘려버렸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건대, 직장사랑이란 자본가조직의 구조적 형태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닌것 같다. 즉 형태로서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직장동료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한다.

‘신념의 홍수’라고 했던가. 모두들 자기 주장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가능하면 꼭꼭 닫고 살려고한다. 더 좋은 ‘빗장’을 찾는데 급급할 뿐 주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누구하나 허점을 보이면 몰매를 치는데 주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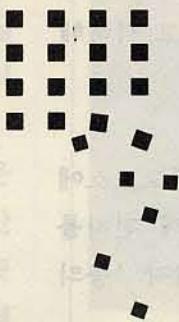
그리고는 빗장을 걸어버린다.

이런 현상은 우리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기집단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 몰매를 분산시키는 양동작전을 쓰기도한다. 직장생활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아집과 혼돈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눔의 정서일 것이다.

직장동료와 공동체 삶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나의 작은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사무실 문을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모범적인 후원활동 모임

— 이대 간호학과 출신 87학번 모임 <강철>

분단초국 48년.

거기에는 짧게는 20년에서 가장 길게는 4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0.75평의 공간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신 장기수 선생님들이 계셨고, 잊혀지길 강요 받았던 역사의 진실앞에 침묵하며 눈을 감은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장기수 선생님들과 연계를 맺고 후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여유들을 갖지 못하고 건강한 삶의 약속만을 마음에 두며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생활을 추스려가고 있을 때였다.

평소 장기수 선생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선생님들과 직접 연계를 맺고자 민가협의 양심수후원회를 찾을 때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양심수 후원회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니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셨다.

이렇게해서 우린 먼저 대전교도소에 계시는 장병락, 양정호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두 선생님께 각각 ‘동의

학원론’과 ‘침구학원론’, ‘소설 등의 보감’을 보내면서 그속에 편지를 동봉하는식으로 했다. 한구절 한구절 고민하여 실어보낸 소식의 답장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우린 너무나 기뻐서 팔짝 팔짝 뛰다가 머리가 하늘에 부딪칠 뻔 했다.

높게만 느껴졌던 교도소 담장을 넘어 선생님들의 정성이 가득한 사연이 우리에게 닿고, 우리의 싱싱한 사랑의 마음을 실려 띠우면서 15척 담장을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출소하신 선생님들과는 서울에 계시는 금재성 선생님, 아산 요양원의 김석형, 조창손 선생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세 선생님 모두 분단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는 생사확인의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계신다.

73세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듯한 웃음을 지니신 금재성 선생님과 우리는 주 중에는 가끔은 선생님 댁에서 허리띠를 풀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루해가 뉘엿뉘엿 사라지고 어둠만을 남겨 놓을 때까지 쏟아내곤 한다.

선생님은 기꺼이 ‘우리’가 되어 주

시고 우린 자랑스럽게 선생님의 ‘딸’이 되고 ‘손녀’가 된다. 누군가 선생님과 처음 팔장을 끼었을 때 멋쩍어 하시던 선생님이 지금은 ‘허허’ 하시며 팔을 내어 주신다.

지난 2월 23일에는 30여분의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금선생님의 생신 잔치를 조촐하게 마련했는데, 시장을 뛰어다니고, 생선을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부리고 없는 솜씨가 안타까웠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 저기서 건네시는 술잔을 다 받으신 금선생님께서 우리의 민요가락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실 때 우린 ‘저 어깨춤을 통일된 조국에서 환한 웃음 가득 안고 다시 보리라’ 마음 속에 다지고 있었다.

아산의 김선생님과 조선생님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소하셔서 그곳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되었는데, 우린 근무 시간이 서로 달라서 두 번으로 나누어 아산에서 내려가야 했다.

반가움 마음을 겨우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에 남겨둔 채 아쉬움을 떨치고 일어서야 하곤 했는데, 3월 11일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어서 이젠 자주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들을 만나뵙고, 편지를 주고 받을 때면 갈라진 조국의 아픔을 다시 한번 깊숙히 느끼며 그로 인한 분노와 선생님들의 삶으로부터의 감동으로 뒤범벅이 되곤 한다. 우린 자주 울어버리고 만다.

오랜 세월 고통의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안아오신 선생님들의 삶에 대한 철저함과 동시에 세심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랑은 우리의 코끝을 수시로 시리게

한다. 우리의 손을 꼬옥 쥐시고는 참된 일꾼이 되십시오. 하시는 선생님들의 뜨거운 손길은 움추렸던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게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후원활동을 해오면서 이것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고 잘못된 이름으로 철저히 가려져 왔던 역사의 고통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젠 외세와 지배자들에 의해 매도되었던 ‘순결’과 묻혀버린 ‘진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역사와의 만남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잘못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말로만 분노하고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분노도 사랑도 아님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오늘도 손과 발이 뜨거운 가슴과 함께 뛰는 힘찬 하루를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짓는 여유로운 웃음으로 시작한다.

.....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장기적 영치금 빌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사법 후원사업(비정기적 영치금 빌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비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 울	신 탁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보내는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청진2동 592-7 (110-542)

받는이: